

보도 일시	2022. 9. 26.(월) 09:00	배포 일시	2022. 9. 26.(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당권 (044-203-2641)
	문화기반과	담당자	연구관 성재현 (044-203-2644)

**‘이건희 기증품 지역순회전’으로  
 문화 향유의 지역 균형 뒷받침한다**  
 - '22년 광주, 부산·경남, '23년 대전 등 7개 지역,  
 '24년 제주 등 3개 지역에서 개최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이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이하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한 국가 보유 미술품의 지방 순회전시를 활성화해 문화 향유의 지역 균형을 보장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정책을 주문함에 따라 10월부터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전’을 본격적으로 개최한다.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순회전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저변을 확대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역 연계망을 활용, 2024년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미술관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10. 5. 모두가 누리는 문화 향유의 기쁨,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시작**

그 첫발은 10월 5일(수),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시작하며,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 고품격 문화 현장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계획이다.

▲ 지방국립박물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었던 기증 1주년 기념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토대로 박물관별 특성화된 전시를, ▲ 지역 미술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업무협약에 따라 엄선한 명작 50여 점을 포함하여 각 기관 상황에 맞춘 전시를 선보인다.

올해는 광주지역에 이어 부산·경남지역에서 순회전을 열고, 내년에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7개 지역에서, 2024년에는 제주를 비롯한 3개 지역에서 순회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년 이후에는 지역 수요와 상황 등을 고려해 순회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순회전 연도별 계획>**

연도	박물관·미술관명
2022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2023	대구시립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2024	전북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충남도립미술관

작년 4월,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국보·보물을 비롯한 문화재와 거장의 명작 등 시대와 분야(장르)를 망라한 수집품 약 2만 3천 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기증 1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었던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4. 28.~8. 28.)’에는 4개월 동안 관람객 23만여 명이 다녀가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함께 대규모 기증으로 높아진 국가의 문화 위상과 자부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문화 향유의 지역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이건희 컬렉션’을 활용한 지역순회전을 준비해 왔으며, 지역순회전을 통해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극복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한 국가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을 확장해 대한민국이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는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이건희 컬렉션 광주지역 순회전’ 개요

□ 전시 개요

- ① 고 이건희 회장 기증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어느 수집가의 초대》(22.10.5.~23.1.29.)
  - 주요 전시품: 인왕제색도(국보) 등 170건 271점 \* 국가지정문화재 16건 31점 포함
- ② 광주시립미술관《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22.10.5.~11.27.)
  - 주요 전시품: 이종섭 <오줌싸는 아이> 등 90여 점(국립현대미술관 제공 50점 포함)
  -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참고 또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

□ 주요 전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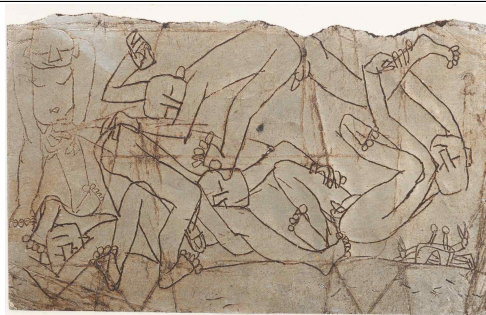


정선 필 <인왕제색도>(국보), 조선 18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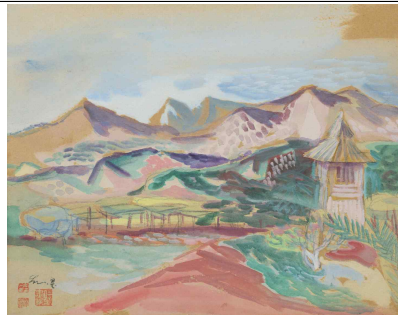


백자 청화 대구 무늬 각방(국보), 조선 18세기

\* 국립광주박물관 사진 제공



이종섭 <오줌싸는 아이>, 1950년대



이인성 <원두막이 있는 풍경>, 1930~40년대

\* 국립현대미술관 사진 제공